

이야기와 젊음을 입혔다... 100년 전통 송정역시장 대변신



시장은 삶이다. 18일 오전 광주 송정역 시장 곳곳에서는 이 말의 효과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차그룹의 도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새 단장한 이곳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국내 여타 재래시장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들이 건물용 새 외형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이곳은 충실하게 내용을 채웠다.

소비자의 발길이 끊겨 남아 가던 광주 송정역시장이 부활하고 있다. 상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젊은 감각이 결합되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내용은 이렇다. 송정역시장의 신일팔 상회 주인장은 40여년 간 싸전을 운영한 어머니에게서 곡물 고르는 법을 배웠다. 또 친구에게서 오리 손질하는 법을 배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현대차그룹 전통시장 활성화 신규 오픈

싸전·주점 등 상인들 이야기 담아 스토리텔링 마케팅
젊은 상인들 대거 입점 특색 튀는 아이디어로 활기
KTX 송정역 전광판 설치...토요야시장 불거리도 가득

30여년 전 송정역시장에서 오리죽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도 있다. 3남매를 둔 한 부부 상인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아내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부엌에서 딱딱 음식을 만들곤 했다. 아내의 손맛은 닭발볶음, 산낙지, 돼지주물럭 등 한 상차림에 소수 한 잔 할 수 있는 송정역시장의 멋진 주점에서 더욱 빛을 냈다. 이 같은 상인들의 삶은 가게 입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과거 상인들의 모습과 함께 젊은 글씨 가게에 붙여 놓아 소비자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특색 튀는 아이디어도 송정역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오래전 문을 닫은 새마을금고 건물에는 이색

하우스맥주집이 들어섰고, 각국의 라면을 모아 파는 27살 여자 사장도 송정역시장의 유명 인사가 됐다. 이 하우스맥주집은 주인이 손수 가게 탁자 등을 만들고 술을 담근다. 이 밖에도 어묵, 초코파이, 계란밥, 부침개 등을 파는 젊은이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사투리를 가미한 디자인 제품을 파는 곳도 생겨났다. 이름도 변했다. 기존 송정역전매일장이란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변경했다. 1913은 송정역시장이 생긴 해다. 또 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1970~80년대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55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했다. 특히 새롭게 거듭난 송정역시장은 인



근 KTX 광주송정역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광주송정역사 밖에서 해당 역의 실시간 열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제2의 대합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곳의 야시장 점포를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 야시장'을 열어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리

공원과 접목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젊은층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광주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주도형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오광록기자 bigkim@

가계대출 저축銀 비중 9년래 최고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여파... 지난해 38.48% 역대 최고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2006년(1.33%)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이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영업을 펼쳤고,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833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저축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대출 잔액은 13조6936억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1.2%였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만 해도 1.89%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꾸준히 떨어져 2013년에는 0.9%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2013년 1.2%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비중이 올라간 것은 저축은행이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38.48%로 역대 최고치였다. 저축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1.35%였지만 2010년 12.59%, 2011년 20.27%, 2012년 27.42%, 2013년 31.57%, 2014년 34.25%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60.04%를 기록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더 큰 곳도 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3개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과 HKB저축은행은 지난 회계연도(2015년 7월~12월)에서 가계에 빌려준 대출금 비중이 각각 66.7%, 50.11%였다. 자산 2조원이 넘는 SBI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비중도 41.02%였다.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간간해진 것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과 3으로 플러스(+)였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 -6으로 떨어졌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0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내내 플러스를 유지했고 올해 1분기에도 6으로 다시 반등했다. /연합뉴스

근로자 10명중 1명 최저임금 미달 빈곤층은 3명중 1명...최저임금 적용시 5% 빈곤 벗어나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실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서 연도별 임금근로자수와 최저임금 미달자수를 분석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지만 이후 2000년 3.0%, 2002년 4.0%, 2004년 6.0%, 2006년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0.7%를 기록하며 10%를 돌파한 뒤 2012년 7.3%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9.8%로 다시 올라갔다. /연합뉴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던 셈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의 절반 이상은 3분위 이하에 속해 있다"며 "최저임금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빈곤가구의 5%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액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09.10 (-5.61)	↑ 금리 (국고채 3년) 1.51% (+0.01)
↓ 코스닥 695.34 (-0.28)	↑ 환율 (USD) 1150.20원 (+4.00)

농어촌공, 광주·담양·화순 지사 통합 7월부터 지사 12곳 감축...구례·곡성, 함평·장성 통합 신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담양, 화순, 구례, 함평을 인근 다른 지역 지사와 합치는 등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역 지사 중 12개를 감축하는 지방조직 효율화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롭게 광주·담양·화순지사, 구례·곡성지사, 함평·장성지사가 생긴다. 전국적으로 대상은 경기 고양, 충북 진천, 충남 세종·대전·금산, 전남 경북 달성, 철곡, 문경, 경남 사천지사다. 공사는 도시화에 따른 농어업환경 변화, 인접 지사 간 교통·행정망, 지사의 자립도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합할

지사를 선정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방 조직 개편은 2000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들 지사의 예산·인사·회계 조직과 관리 인력을 인근 지사로 통합하고, 생산기반 조성·농지은행·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 지원 기능은 유지한다. 지사장(1급)과 부장급(2급) 직위가 24개 줄고, 통폐합 지사의 관리 인력은 현장 서비스·사업 인력으로 전환한다. 지사 조직을 규모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중복 업무를 줄이고, 농어업인 현장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기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자부품연구원, 21일 광주서 '가전 기술혁신 매치메이킹'

전자부품연구원(KETI·원장 박정원)은 오는 21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KETI 광주본부에서 '스마트기전, 기술혁신 매치메이킹' 행사를 연다. 기술혁신 매치메이킹은 기업협력플랫폼의 일환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KETI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보증기금, 광주테크노파크가 후원하며, 광주주력산업인 가전산업 및 생체의료용 산업의 발전과 기업 비즈니스 밀착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맑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IPALGI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